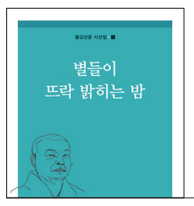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9/18~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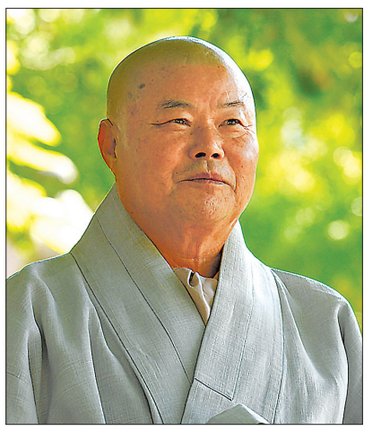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천태소지관	천태지자/윤현로	운주사	6	삶이 내게 묻는 것들	보현스님	쌤앤파커스
2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	김원수	청우당	7	우리는 우리를 얼마나 알까(마음대로 풀어 쓴 섭대승론)	무착/정화스님	북드라망
3	요가 디피카	B.K.S.아헹가/현천스님	선요가	8	당신의 주인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대붕선사 법어집)	편집부	무상사
4	도해 운명을 바꾸는법	석심전/김진무	불광출판사	9	자신과 마주하는 임제록	성윤갑	조계종출판사
5	염불수행대전	주세규	비움과소통	10	붓다는 결가부좌를 하지 않았다	이영일	수련하는돌

"한마음으로 보면 모든 게 결국 제 자리"



별들이 뜨락 밝히는 밤
상인 스님 지음/불교신문사 펴냄/1만원



50년간 마음거울 닦아온 수행자
서정적인 감수성 시어로 녹여내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충북 음성 가섭사 주지 상인스님〈사진〉이 시집 〈별들이 뜨락 밝히는 밤〉을 출간했다. 이번 시집은 〈별들이 뜨락 밝히는 밤〉이란 제목서 알 수 있듯 출가 50여 년 동안 마음거울을 닦아온 수행자의 서정적 감수성이 시어로 녹아 있다. 상인 스님은 일찍이 법주사로 출가해 전국을 주유하며 한곳에 머물지 않고 수행에 매진해 온 납자다. 법납이 차 오르며 인연처가 되어 몇몇 사찰 소임을 보기도 했지만, 스님의 마음은 언제나 버리고 훌훌 떠나는 자유로운 바람같다. 상인스님의 시를 서평한 이하석 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 생각에 의해 한생을 살자면 한생이 한마음 보지 못하고
마음이 한마음 보면 말티재 넘어가는 저 햇님도
한자리 머물러 해와 달빛 하나 되어
세세생생 없이 문장대 아래 있으리
–〈말티재를 넘으면서〉 전문

"생각이 무엇인가를 바꾼다고 여기기도 하지만, '한 마음'으로 보면 결국 모든 게 제 자리에 있다는 자각이다. 그러므로 스님의 삶은 '한마음'을 보는 '거기'에 있겠다. '거기'는 일상 삶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그 자리이다. 이 시에서는 '문장대 아래'라는 인식이 예사롭지 않다. 문장대는 법주사가 있는 속리산의 바위다. 그래, 스님은 법주사와 인연이 깊다. 그 수행의 첫 인연 자리이자, 만행의 출발점이 된다."

상인 스님은 2000년 여름 인각사 주지로 부임하며 한참동안 걸망을 풀어 놓은다. 그곳에서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와 인연을 맺으며 '일연삼국유사문화제'를 열고 일연문학상도 운영한다. 일연스님의 비를 고증된 탁본에 의해 다시 건립하고 〈삼국유사〉 영인본을 간행했다. 또한 해마다 일연 스님 관련 행사를 성황리에 열고, 일연 관련 학술회의도 개최하며 인각사를 '일연학'의 본산으로서 우뚝 서게 만들었다. 이뿐만 아니라 범위를 넓혀 달성의 비슬산 대견사를 복원하려는 원을 세우고, 두루 관련 기관들과 소통하면서, 한편으로는 달성군수를 세 번이나 만나 진전된 논쟁을 펼치기도 해 그 결과 현재 대견사가 복원되는 씨앗을 뿌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 뿐, 스님은 걸망을 메고 다시 훌쩍 음성 가섭산 가섭사로 왔다. 그곳에서 바람과 구름을 만났고 밤새도록 우는 풍경소리의 마음을 언어로 조각해 냈다. 일전에도 여러 편의 시들을 써 놓기도 해 이번에 한 곳에 묶어 〈별들이 뜨락 밝히는 밤〉으로 세상 독자들과 만나게 됐다.

상인스님의 시세계는 무엇보다, 당연히, 수행자의 가지런한 마음가짐이 느껴진다. 이하석 시인은 스님의 시세계가 내면으로 향해 있다고 지적한다.

높고 높은 산허리
천년 묵은 소나무
세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흐르는 계곡 맑은 물
작은 미물에도 흐려지지 않는도다.
–〈수행〉 전문

상인 스님의 시는 '너와 내 마음'이 '둘 아닌 삶인 것'을 인식시켜 준다. 그래서 스님의 시를 읽는 독자에게 계속 되새김하고, 다짐하면서 삶을 나아가게 한다. 이 자각의 행로야말로 그의 시의 출발이자, 정점이며, 귀결점이라고 이하석 시인은 평한다.

"스님의 시는 '님'을 찾는 도정의 언어라는 수행의 행로를 보여준다. 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행로는 우리 서정시의 본류이기도 하다. 흡사 선재동자의 순례처럼 구도의 간절함이 편편마다 드러난다." 요즘 상인스님은 가섭산 가섭사에 머물며 중소도시 음성군 불자들과 소통한다. 불교대학도 개설하고 정기법회도 봉행하며 인연을 소중히 가꾸어 간다. 그러면서 가섭사의 구름과 바람과 태양과 이슬과 대화하며 시편들을 캐낸다.

노을처럼 비단옷 갈아입은 산자락이 찬란하다
먼 길 가는 나그네 마음마저 붙잡혀
돌아가는 산자락 아득하여라
어느덧 보름달 동산에 나와
호탕한 웃음 메아리치는데
당신, 무엇하러 왔냐고
내 주위를 빙빙 도는 그림자 하나
어쩌면 그대 같기도 해서
갈 길을 놓치고 말았다.
–〈헛개비〉 전문

이하석 시인은 상인스님의 시 〈헛개비〉를 평하며 "자책과 번민을 떨치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당신'을 향한 갈구의 정이 넘쳐난다"고 평한다. '먼 길 가는 나그네'의 그 길은 '어둠 가르며/찾아' (〈백리 벚꽃 길〉)가는 길이며, '꽃샘추위 헤집고' 닿는 길이라는 것이다. 헛개비인 줄을 알면서도 '내 주위를 빙빙 도는 그림자'를 떨치지 못하고 탐닉해, '갈 길을 놓치고' 만다. 자연과의 일체감이라는 정서적 안정과 갈 길을 놓치는 불안정의 정서가 충돌하는 모습을 통해 수행자의 고뇌를 드러낸다고 한다.

상인 스님은 시인이기에 앞서 담대한 세상을 직면하는 수행자로서 번뇌와 망상을 떨치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라는 자각을 시 여러 곳에 녹여낸다.

네가 그리워 앞산 바라보면서
너의 모습 마음으로 그려보니
너의 모습은 앞산에 가득 찼네
너무 좋아 포옹이라도 하려 하니
누군가 어디에서 왔는지
길 지워버리고
님의 모습마저 지워버렸네
이 산 저 산 찾았으나
어둠만 찾아오네 –〈기다림〉 전문

▲저자 상인 스님은?

1950년 강원도 홍천서 태어났다. 법호는 고선(古禪). 1969년 법주사서 혜정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1975년 법주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군위 인각사 주지, 대구 대성사 주지, 제천 정방사 주지를 역임했다. 2001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일연학연구원 원장으로 〈삼국유사〉를 저술한 일연선사에 대한 연구와 업적을 널리 알리는데 앞장섰다. 대전교도소 종교위원을 맡아 교정인 포교에 매진했고,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상임이사로 활동하며 하동청소년회관 관장을 맡아 청소년 포교에도 일조했다. 현재 충북 음성 가섭사 주지로 재직하며 지역포교에 매진하고 있으며 '삼국유사 연구원'을 설립해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시집 〈낙서〉와 수필집 〈소박한 적멸〉이 있으며 번역공저인 〈아인슈타인에게 묻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출판산업 진흥 및 독서문화 향상을 위하여 실시한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문학분야)에 선정되기도 했다.

부처님께서 중생에게 전한 운명 개척법의 모든 것



도해 운명을 바꾸는 법
편저 석심전/번역 김진무, 류화송
불광 펴냄/2만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곧잘 잊고 지내는 진리가 하나 있다. 과거 동서양의 많은 성현(聖賢)들이 충고했듯 자신의 운명은 각자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붓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 이번에 나온 〈도해 운명을 바꾸는 법〉에서 강조하듯 우리의 운명, 우리의 인생은 어떤 신적 존재나 미지의 힘에 의해 조종되는 것이 아니다. '운명'과 그 운명을 '뛰어넘는 법'에 관한 붓다의 가르침에 전제된 것은 각자 운명의 주재자(主宰者)는 오직 자신뿐이라는 점이다.

이 책의 설명은 중생은 모두 깨달을 수 있는 존재라고 선언한 붓다의 메시지로 이어진다. 달리 말해 우린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평등한 존재임을 공표한 것이다. 각자의 업에 따라 처한 운명은 다르더라도 누구에게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평등하게 주어져 있다. 그러므로 우린 자신의 인생을 숙명의 틀에 가두어 절망적인 데로 돌릴 필요가 전혀 없다. 오히려 이 책의 초반에 나오는 말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본을 관리' 하듯 자신의 '행운을 관리' 하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누구나 삶의 힘든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 한번쯤은 '난 왜 이런 팔자를 타고 났지?' 라며 탓해 본 적 있을 것이다.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주어진 팔자, 다시 말해 정해진 운명이 있어서 인생은 그 길로만 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그렇다 보니 인생을 수동적으로, 비관적으로 살기도 한다. '정해진 운명'이란 정말 있는 걸까? 애석하게도 붓다는 '그렇다'고 말한다. 불교에서는 과거의 업에 의해 현재의 삶이 만들어지고, 현재의 업은 미래의 삶을 만든다고 말한다.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붓다의 말은 이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이 말은 실상 희망적이다. 조건과 결과, 즉 인연과보(因緣果報)를 중시하는 불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숙명'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 '운명은 바뀔 수 있다' 는 가능성의 표현이다.

이 책의 추천사를 쓴 조용헌 선생은 '스스로 자기 운명에 개입하라' 고 말한다. 어쩌면 인생의 쓴맛을 보았을 때 '팔자소관으로 돌리는 것' 이 가장 편한 일인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미 '운명을 바꾸는 건 물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나' ' 인데 구태여 머무를 이유는 없다. 이 책의 핵심이자 붓다가 이야기하는 개운법의 핵심은 바로 '마음'에 있다. 편저자는 마음 변화를 통해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이미 모두가 보편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말한다. 이 책서 강조하는 것처럼 생각이 인생의 재앙과 복을 결정짓는다. 마음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를 가져오는 원리를 정리하면 이렇다. '마음이 바뀌면 태도도 따라 변하

"스스로 자기 운명에 개입하라"
핵심은 당신 '마음'…바꾸면 극락

며, 태도가 변하면 우리의 습관도 따라서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우리의 성격도, 성격이 변하면 우리의 인생도 따라서 변한다' . 결국 운명을 바꾸는 법은 마음(생각)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만약 자신의 심리를 가장 좋은 상태로 조절해 안정적이고 침착하며 편하고 즐거운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인생은 저절로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며 자유롭고 거침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절로 행운아가 될 수 있다. '운이 나쁘다' 같은 말은 사실 틀린 말이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잘 잡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이 책에서는 자신의 운명과 인생을 관리하기 위한 네 가지 사유법으로 '사공가행(四共加行)' 을 소개한다. 네 가지 사유란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려움(人身難得)' '생명은 무상함(生命無常)' '인과업보' '윤회의 허물과 우환(過患)' 을 말한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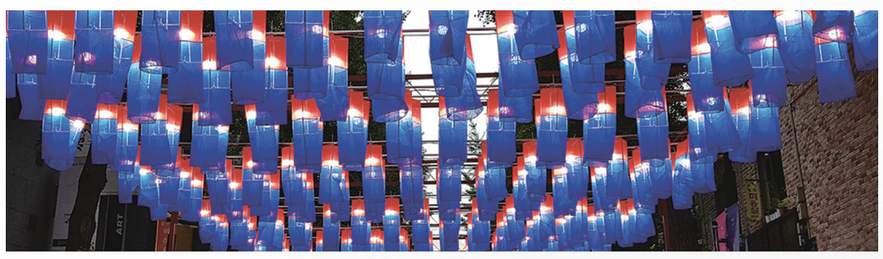
불사용 장엄등 시공 • 임대

보련기획

장엄등을
대여해드립니다

설치에서 철거까지 책임 시공
행사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출
보관 · 사후관리 불필요











BORYEON 보련기획
010-5381-9355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